

수의해부학용어 제정 경위와 개정의 당위성

한국수의해부학회 용어제정위원회



한 국수의해부학회 산하의 특별기구인 「수의해부학용어제정위원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지 2007년 7월호에 게재된 백영기 명예교수님의 '수의해부학용어의 역사와 용어 개정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는 기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해부학용어의 제정 경위와 개정의 당위성'을 수의학계에 알려드리고자 한다.

대한수의학회에서는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해부·조직·발생학 용어에 대한 의견을 본 학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학회에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4년 7월 1일 충남대학교에서 전국 수의학과에서 수의해부·조직·발생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5년 2월 한국수의해부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의학해부학용어'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하여 수의해부·조직·발생학 용어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정작업 초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수의해부학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해부학용어의 제정 동향에 대한 추이도 관망해야 하는 점들이 맞물리면서 개정작업이 매우 느린 속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사람해부학용어집 제5판이 출간되는 시점에 맞춰 2006년 8월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회원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년 여간 전국의 해부학관련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이제 그 결실로 '수의해부학용어 제2판'의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용어의 개정 작업은 수의해부학용어, 수의조직학용어 및 수의발생학용어 등 3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였고, 이 작업을 위하여 현직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을 모두 제정

위원으로 위촉하여, 숙식을 같이 하며 보다 훌륭한 용어의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수의해부학용어는 사람해부학용어를 따른다’는 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용어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따라서 인체에 있는 구조가 동물에 있는 경우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체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 구조에 알맞은 새로운 용어를 제정하여 사용해야함은 물론이다.

1991년에 수의해부학용어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도 한글화 작업을 막 시작한 사람해부학용어를 준용하였는데 이때에도 수의학의 다른 전공자는 물론 같은 해부학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해부학용어를 그대로 써야한다는 대원칙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람해부학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어느 정도 한글화된 수의해부학용어를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용어로 교육해 온 결과 현재는 한글화된 용어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일 이런 대원칙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쓰고 있는 수의해부학용어가 일본어에서 유래를 하였던 어디서 유래를 하였던 간에 아무 불편 없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굳이 사람해부학용어가 한글화되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학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같은 전공 교수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수의해부학용어는 1993년 ‘가축해부학용어’라는 제명으로 초판이 발행된 이후 16년 만에 개정된 제2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라틴어로 된 *Nomina Anatomica Veterinaria (N.A.V.)*는 제5판까지 두 차례 개정되었고, 수의해부학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글화된 사람해부학용어도 두 차례 개정이 되어 제5판이 발행되었다.

또한 이제까지 사람발생학용어를 그대로 이용하였던 초판에 비하여 이번에는 라틴어로 된 *Nomina Embryologica Veterinaria (N.E.V.)*는 제2판 개정판이 2006년 발행되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용어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수의해부학용어도 거기에 맞추어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새로운 용어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계기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의해부학계의 제반 여건상 이러한 추세에 맞추는 것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사람해부학용어가 궁극적으로는 완전 한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해부학용어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을 때 개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 동안 개정을 늦춰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람해부학용어 제5판을 준용하여 개정된 수의해부학용어 제2판은 이러한

완충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의학 분야의 다른 전공 교수나 이미 퇴직하신 교수님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수의해부학용어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외에도, 수의학계의 동향이 ‘수의학 대사전’이나 ‘수의학용어집’ 등의 출간으로 우리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준화가 시작되는 추세이고, 아울러 수의해부학을 비롯한 수의학 관련 교재도 새로 편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앞에서 언급하였던 ‘수의해부학용어는 사람 해부학용어를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라틴어 용어로 된 해부학용어를 같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쓰게 되어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수의해부학용어의 개정 초기에 많은 부정적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수의해부학용어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해 본다면, 수의해부학용어 제2판의 출간에 대해 ‘왜 부자연스러운 사

람해부학용어를 굳이 따라가려 하느냐’는 의견은 자기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런 원칙은 지키되 개별 용어에 있어서 뭔가 어색하고 원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용어가 있다면, 이러한 의견은 얼마든지 반영하여 구조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되도록 수정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물의 앞발은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상 당연한 것이나 관습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된 수의해부학용어에서도 이를 ‘앞발’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용어의 경우 사람해부학용어를 따른다고 하여 그 의미가 크게 변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수의해부학용어 제2판의 개정작업과 출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임을 밝히고 수의학 관련분야 종사자 제위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